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운원신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23:32-43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나를 기억해 주소서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3/15/26	3/22/26
장헬렌	최성호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분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울지 말고 올라

성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던 길, 그 길 위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역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그 장면은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나 누가는 거기에 한 장면을 더 덧붙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며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향해 울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하시는 의인을 보며 울었습니다.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녀는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복이라 말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환난의 참혹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생명을 낳는 기쁨조차 슬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그 때에 사람들이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고, 언덕더러 우리를 덮어라 할 것이다.” 이 표현은 호세아 10장 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죄의 결과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절망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심정,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심판의 현실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물이 감정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눈물이 회개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감동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자신의 죄를 향한 통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복음의 중심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는 죄 없으신 자신을 가리키고, 마른 나무는 죄로 말라버린 인류를 가리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이런 고난을 받으신다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그 아래에서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책임을 가진 존재로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외형은 번영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른 시대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어라.” 이것은 절망의 명령이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가는 초청입니다. 눈물이 죄를 씻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의 눈물은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주님을 향한 동정에 머물지 않고, 나의 죄를 향한 통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통회가 새로운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